

국회가 쥔 타다 운명 ‘그만 타’법 통과되나

통과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
국토부 ‘렌터카’ 포함 방안 강조
타다 “여객법 개정안 입법 막아야
1.2만 일자리 잃게 만든다” 호소



서울 시내에서 타다가 주행하는 모습. /구세윤 기자

11인승 차량을 중심으로 승객 운송 서비스를 하는 타다에 운명의 날이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을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문턱까지 넘게되면 타다는 1년6개월(시행 유예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과된다면 타다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입법 작업을 밟아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해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타다는 기존처럼 렌터카 기반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받아야 한다. 결국 타다의 현행 방식을 금지하고 카카오톡처럼 플랫폼 택시 형태로 운행

하라는 말이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 호소하고 있다. 타다는 3일 법사위에 “타다금지 조항인 ‘34조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기존의 34조 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카카오톡모빌리티, 위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본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법안의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고, 법안이 담게 될 포괄적인 규칙 위에서 착실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준비했던 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여전히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단체까지 참여해 도출한 법안이며, 타다를 멈춰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심각한 모호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타다, 세스코와 협력... 전차량 살균 소독

코로나19 예방 일환



타다가 세스코와 협력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전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문 살균 소독을 진행한다.

타다는 4일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와 협약을 맺고 타다 전 차량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스코는 바이러스 살균 약제를 초미립 분무(ULV) 방식을 통해 차량 내부의 의자, 바닥, 핸들, 문, 트렁크, 빈 공간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약제 분무 후 차량 문을 15~30분 동안 밀폐해 살균을 유지하고 이후 환기 및 잔류 약제 처리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타다는 지난 1월 28일부터 차량 정기

세차 시 소독제로 2차 세차를 실시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드라이버 운행 전 손세정, 발열체크와 운행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는 드라이버와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도 세스코 바이러스케어 솔루션을 통해 강력한 살균 예방 정책을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세윤 기자

“연체·체납 소상공인에도 추가 대출”

박영선 장관, 매출감소 기업 대책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상 정책자금 금리 0.3%p 인하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명륜진사갈비 여의도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과 차담회 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가운데 “기존에 보증 금액이 있어도 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며 “연체나 세금 체납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은행에 가져가 대출받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중은행에 위탁보증을 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명륜진사갈비 여의도지점을 방문, ‘착한 프랜차이즈’ 관련 차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서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522곳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본사 명륜당의 강현준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자 23억원을 들여 모든 가맹점들에 한 달 임차료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매장 한 곳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1690만원의 월세

를 본사로부터 도움받았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가맹점에 대해선 총 5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도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임대료 지원, 로열티 면제, 원재료비·물류대금 인하 등을 통해 가맹점 지원에 나선 ‘착한 프랜차이즈’는 지난 3일 기준으로 45개 브랜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브랜드의 가맹점만 전국에 6만3000곳 있다.

박 장관은 “1차, 2차, 오늘(4일) 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기부만) 총 3조1500억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선 정책자금 금리를 0.3%p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과의 차담회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코

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차담회에 함께한 한 참석자는 “장관 말씀을 들으면 대출로 어떻게든 버티나 가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직접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나서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고 이 내용이 뉴스로 나오다보니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타격이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불가피하게 휴업한 소상공인 등 이유가 뚜렷한 경우에만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세는 9개월, 지방세는 6개월씩 유예를 해주고 있고, 4800만원이던 간이과세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6000만원으로 올려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예산 103억 마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투입

중기부-중진공, 18일까지 신청접수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별예산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우처사업을 위해 10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글로벌 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국제인증 획득 등 6000여가지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예산을 통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수출·입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벤처·스타트업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등 혁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경.

신형 산업 관련 기업이다. 신청을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기로 했다. 보조금 사용률이 저조한 기업

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업 재참여 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이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체 수입선 발굴과 온라인 전시회 참여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했다.

중진공 김현진 수출마케팅사업처장은 “수출바우처는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중기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하우스룩, 조리정수기 해외설치 100곳 돌파

업계유일 ‘정수’ 기능...글로벌 인기

하우스룩이 조리정수기 해외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우스룩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조리정수기 해외 납품 설치장소 100개소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조리정수기 설치 장소는 편의점이 51%로 가장 많았고 외식 매장이 22%, 개인 및 일반매장도 16%나 됐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공장 구내 식당 중에서도 하우스룩 조리 정수기를 선택

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 주상복합상가와 멀티플렉스,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식당이 조리정수기를 많이 찾았다.

앞서 하우스룩은 지난해부터 해외 시장을 공략해왔다. 연평균 5차례 현지 박람회를 참석하고, 이와 별개로 매달 1~2회 씩 현지 업체와 제휴 및 납품을 위해 출장도 이어가고 있다. 조리정수기 설치 장소가 통계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하우스룩 조리정수기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정수



베트남 수출 선적되는 하우스룩 조리정수기. /하우스룩

기능’으로 인기 물이 중이라는 후문이다. 현지 식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 라면조리기 등 즉석 조리기는 많지만, 정수 기능을 탑재한 제품은 하우스룩 조리정수기가 유일하다. /김재용 기자 juk@